

## I. 주간 경제 동향

### 1. 경제 개관

- (개관) 수출 상승세 반전, 산업 생산 감소폭 둔화 및 실업률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임금 하락과 물가 안정세는 지속, 금융시장은 안정적 움직임을 보임
- (11월 중 수출 동향) 6개월만에 수출이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나, 향후 지속 여부는 아직 불투명
- (10월 중 산업활동 동향) 9월에 이어 10월에도 경기 지표 개선 조짐이 나타나 경기 저점 임박 가능성을 시사, 그러나 내수 위축은 여전
- (고용 및 임금 동향) 7월 이후 3개월 연속 실업률이 소폭 감소했으나 고용 불안은 갈수록 심화. 임금 감소세는 3/4분기에도 지속
- (11월 중 물가 동향)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모두 전월 대비 하락세로 반전
- (외환시장)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에 따른 달러 공급 우위의 지속으로 환율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1,240원이 저점이라는 인식에 따라 소폭 상승으로 반전
- (자금시장) 단기금리의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후, 단기 금락에 대한 경계감으로 보합세 지속
- (주식시장) 최근 급등에 대한 경계 매물과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 급증으로 주가는 하락세로 반전

### □ 개관

- 수출 상승세 반전, 산업 생산 감소폭 둔화 및 실업률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임금 하락과 물가 안정세는 지속, 금융시장은 안정적 움직임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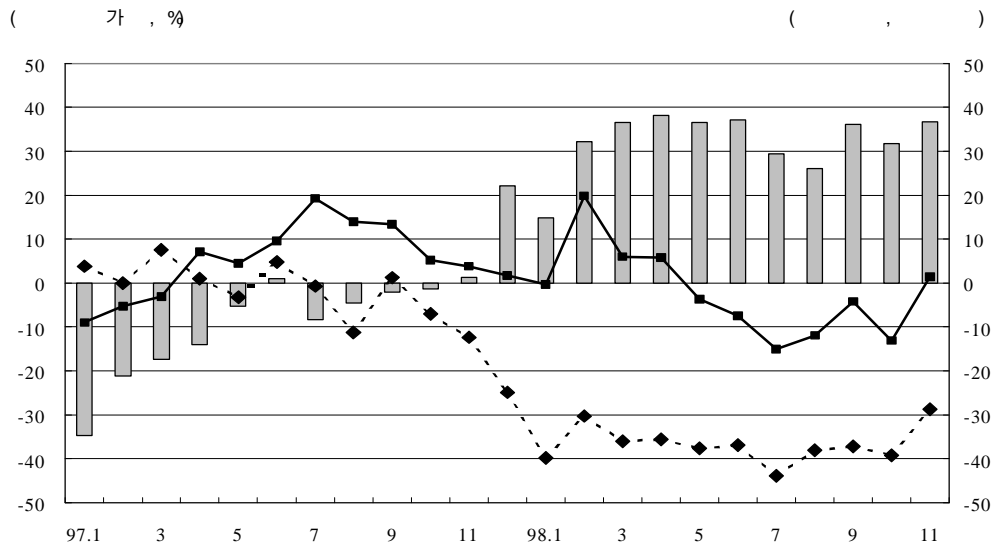
### □ 11월 중 수출 동향

- (수출 증가세 반전) 11월 중 수출은 15% 증가하여 6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
  - 지난 5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하던 수출이 11월 들어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120.1억 달러를 기록
  - 수입은 83.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-28.8%로 감소세가 둔화
  - 11월 중 무역수지 흑자는 36.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보였던 지난 3월의 37.2억 달러와 비슷한 규모에 달하였음

- (증가세 지속 불투명)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임

- 수출 증가세 반전은 반도체 및 자동차의 수출 호조, 엔화 강세, 정부의 수출입 금융 지원 등 정책적 노력 효과의 가시화, 선진국의 내수 경기 부양 정책 등 국내외적 수출 환경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임
- 수입 증가는 수출 증가에 따른 원자재 수입의 회복과 제조업 가동률 상승에 따른 부품 및 자본재 수입의 회복에 기인하고 있음
- 그러나 이러한 수출 환경 호조가 지속될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음

<최근 수출입 동향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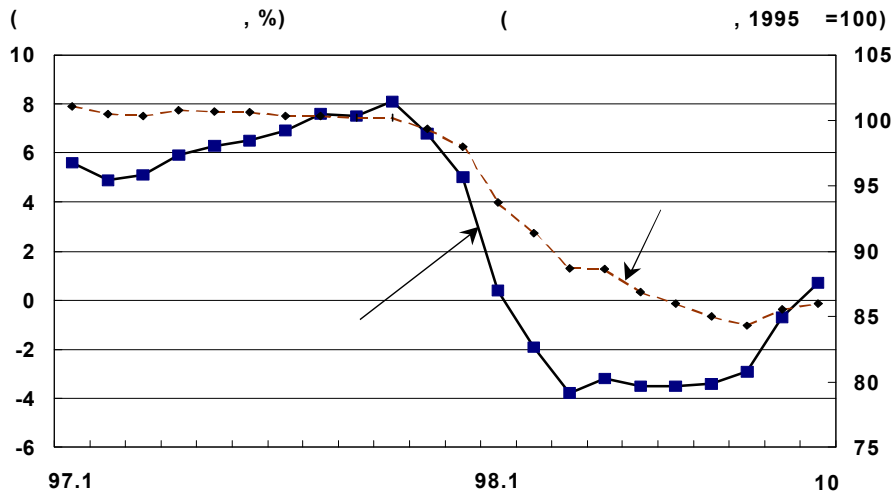
□ 10월 중 산업활동 동향

- (경기 바닥권 근접) 경기 지표들이 경기 바닥권에 접근 시사

- 10월 중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 9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하고 6~7개월 후의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도 지난 7월 이후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바닥권에 접근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
- 10월 중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-8.0%를 기록. 추석연휴로 조업일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일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감소폭은 4~5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
- 제조업 가동률도 지난 9월 70.0%까지 상승한데 이어 10월에는 67.6%을 기록, 상반기 평균가동률수준(67.2%)을 웃돌고 있음

- (내수 위축 지속) 소비 및 투자 지표들을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
  - 도·소매판매는 13.6% 감소세를 보여 9월의 11.9%보다 감소 폭이 커졌으며 기계류 수입액도 55.1% 감소하여 소비 및 투자 위축이 여전히 지속됨
  - 특히, 건축허가 면적도 79.9%가 줄어들어 지난 68년 통계작성 시작 이후 최저치를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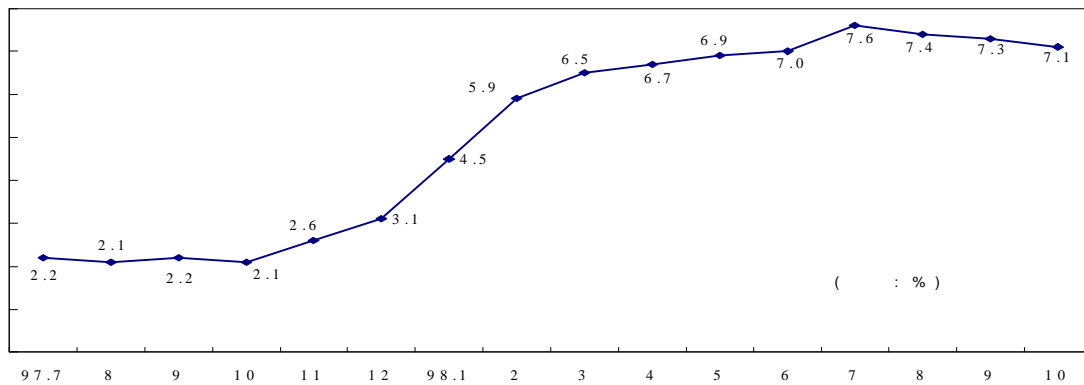
< 최근 경기지표의 움직임 >



□ 고용 및 임금동향

- (실업률 석달째 감소) 그러나 상용직 감소로 고용 불안은 갈수록 심화
  - 10월 중 실업률은 7.1%로 9월에 비해 0.2%p 하락하여 3개월 연속 감소
  - 10월 중 실업자는 156만 6천 명으로 9월에 비해 3만 6천 명 감소하였음

<실업률 추이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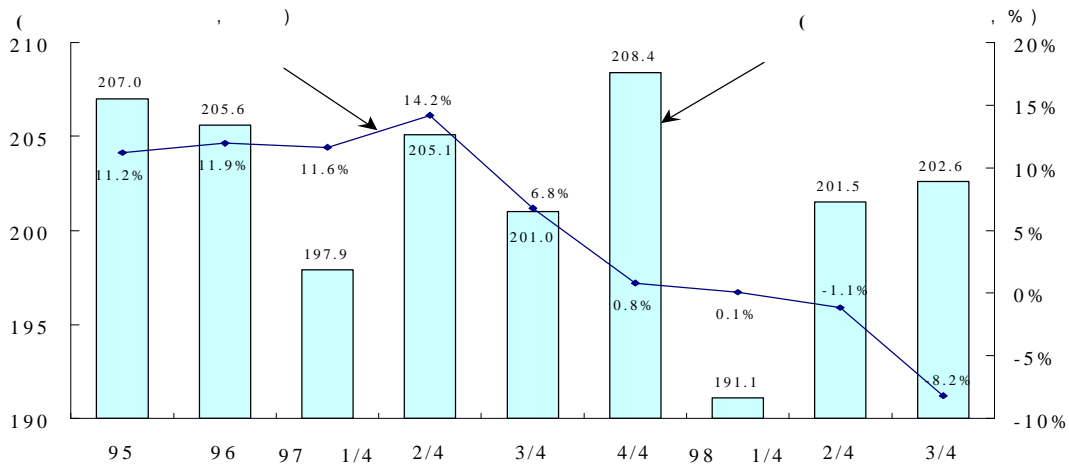


-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와 고졸이 전월에 비해 각각 0.1%p 하락하는데 그쳤으나 대졸 이상 실업률은 5.9%로 0.5%p 낮아져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음
- 최근 실업률의 하락은 정부의 대대적인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임시직 및 일용직 고용의 확대에 기인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10월 중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는 각각 2만 2천 명, 8만 7천 명이 증가하였으나, 상용직은 3만 명이 줄어들어 고용 구조는 계속 악화되고 있음

- (임금 감소세 지속) 3/4분기 중 근로자들의 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한 반면 근로시간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- 3/4분기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총액은 141만 7,000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8.1% 감소하여 2/4분기에 이어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음
- 또한 물가 수준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14.2%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70년 고용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함
- 임금 내역별로는 호봉 승급분이 반영된 정액급여는 104만 7,000원으로 3.2% 상승했으나 초과급여는 10만원으로 16.5% 감소, 상여금이 포함된 특별급여는 27만원으로 33.8% 감소함
- 한편, 월평균 근로시간은 202.6시간으로 지난해 동기(201.0시간)에 비해 0.8%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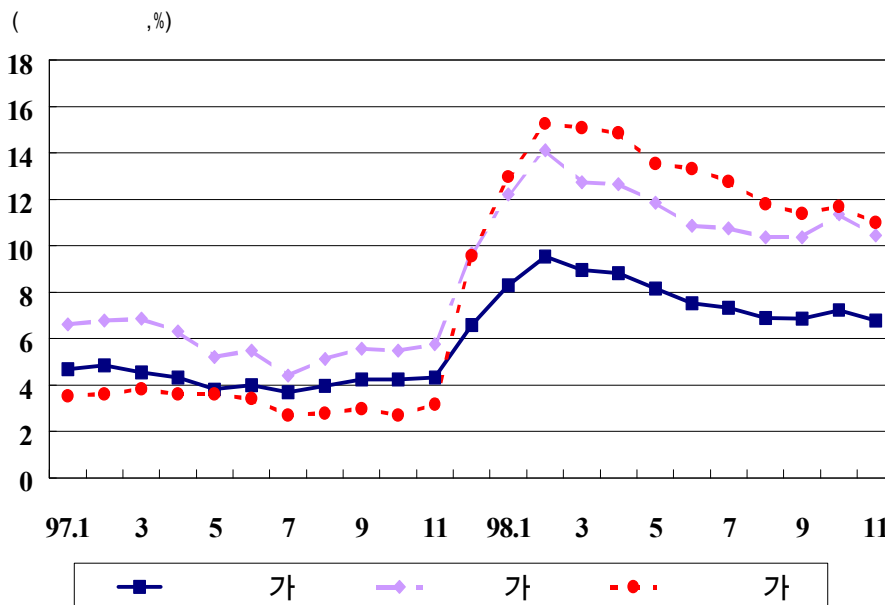
< 명목임금 및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>



□ 11월 중 물가 동향

- (전월대비 소비자물가 하락) 농축수산물과 서비스 가격 하락으로 전월대비 0.3% 하락하여 8월 이후 지속된 전월대비 상승세에서 반전
  - 전년 동월 대비로는 IMF 체제 이후 가장 낮은 6.8% 기록. 전년동기대비(1~11월)로는 7.9%를 기록함에 따라 연간상승률은 당초 정부의 예상치(8%)보다 낮은 7.5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
  - 상품은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전월대비 0.5% 하락. 서비스도 집세, 공공서비스, 개인서비스 가격이 모두 하락하며 전월대비 0.2% 하락
  
- (전월대비 생활물가 하락)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지수도 전월대비 0.5% 하락. 전년 동월 대비로도 10.4% 상승
  
- (전월대비 생산자물가 하락) 국제원자재가격, 환율, 금리 하락으로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전월대비 0.2% 하락. 전년 동월 대비로는 11.0% 상승

< 최근 물가 추이 >



## □ 외환시장

- (환율 하락세 지속) 원/달러 환율은 1,240원 대까지 하락
  - 12월 1일 현재 원/달러 환율은 1,245.0원을 기록
  - 외국인 주식투자자금과 기업 네고 자금 등 공급 우위 지속에 따라 하락세가 계속됨
  - 그러나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 심리가 하락 폭을 감소시키고, 1,240원대가 저점이라는 인식도 확산됨. 아울러 달러 수요 증대와 엔화 약세 반전에 따라 26일 이후 소폭 상승세로 반전

## □ 자금시장

- (지표 금리 하락세) 회사채 수익률 9% 초반으로 하락
  - 12월 1일 현재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은 9.28%를 기록함
  - 한국은행의 단기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어 하락세 계속
  - 그러나 9.25%까지 하락한 후 급락세에 대한 경계심리로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26일 이후 보합세 유지
  - CD 및 CP 유통수익률은 7%대에 머무름

## □ 주식시장

- (주가 하락세로 반전) 종합주가지수 440포인트 대
  - 12월 1일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445.96 포인트를 기록
  - 최근 급등에 대한 경계 매물과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 급증으로 하락세로 반전
  -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하여 외국인 매수세가 미약하고 세계 증시 동반 하락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주가 하락을 더욱 부추김

(채 창 균 ckche@hri.co.kr ☎724